

## 부착치은 증대의 임상적 필요성에 대한 고찰

윤우혁\*, 피성희,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연구 배경

: 부착치은은 하부 치조골에 견고히 부착되어 있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는 조직으로서, 저작 및 잇솔질시 기능적 외상에 대하여 치조점막보다 저항성을 가지고 가동성의 유리치은 및 치조점막 사이의 완충역할을 한다.

치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부착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착치은의 넓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어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각화치은이 없어도 임플란트 혹은 자연치의 예후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적당한 넓이를 가지는 부착치은은 변연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결합조직의 부착이 계속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 교정, 근육 소대부착 및 급격히 치은이 퇴축된 경우와 같이 손상받기 쉬운 부위에서는 건강한 부착치은이 더욱 필요하다.

### 연구 방법 및 재료

: 본 임상증례에서는 하악전치부의 순측이동으로 인해 급격한 퇴축이 예상되는 교정환자, implant 이차수술시 abutment 주위의 각화치은이 부족한 환자, 전정이 얇은 환자 등에서 치은치조점막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Free Gingiva Graft, Apically Positioned Flap 등의 치주성형수술 (Periodontal plastic surgery)을 통해 부착치은의 폭과 두께를 증가시킨 후 그 예후를 살펴보았다.

### 연구 결과

: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 전반적으로 부착치은의 폭과 두께가 증대된 상태로 술 후 3개월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

: 이상의 증례를 통해서 부착치은의 폭경과 두께의 증가를 위한 FGG와 APF 등의 치주성형수술이 상당히 예지성 있는 유용한 술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치아와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화치은의 부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